

자끄 데리다의 《목소리와 현상》 해체주의의 초석

1940년대에 논리실증주의 철학 운동을 대표했던 류돌프 카르넵은 심오한 깊이가 있다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난센스에 지나지 않는 말놀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저서를 쏟아낸 하버드대학 출신 여교수 마다 나우스바움은 “데리다(Derrida, 1930~2004)를 읽으면 철학적으로 투명해지기는커녕 더 헛갈리니 그의 책을 멀리하라”고 주장한다.

글_박이문

하지만 하이데거는 누가 뭐래도 20세기 초반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인문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데리다는 작고한 지 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철학자이자 모든 학문적, 문화적, 정치사회적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라톤에서 데카르트, 칸트, 카르넵, 러셀 그리고 훗설로 이어지는 서양철학의 큰 산맥은 인식의 주관과 독립된 객관적 세계의 전제와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그 세계의 확고한 인식 가능성을 전제했다. 그러한 철학적 전제에 기초한 과학기술 문명의 화려한 꽃들을 ‘근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근대성은 다름 아닌 서양철학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두 전제가 옳았음을 확인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절대철학으로서의 서양철학에 대한 확신, 훗설

이러한 그리스적 서양철학을 이전의 어떤 철학자보다도 철저하게 그 본질을 밝히고 추종하며, 가장 순수한 상태로 보존하려고 했던 철학자가 20세기 초의 훗설이었다. 이른바 “현상학”(phenomenology)은 그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발명한 철학적 방법이자 철학적 존재론, 인식론이다.

이 철학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그의 비교적 초기 저서인 《논리적 탐구》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보편적 진리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절대적으로 주관적인 확실한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서양철학을 “절대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러한 철학의 특징이 훗설의 현상학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논리적 탐구》는 그런 현상학의 본질을 담은 책이다. 만약 《논리적 탐구》의 주장에 이론적, 논리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곧 현상학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고, 현상학의 문제는 곧 훗설 철학의 문제를, 훗설 철학의 문제는

곧 서양철학 전반의 근본적 문제를, 서양철학의 문제는 곧 근대문명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의 월남전 반대운동과 기존문화에 대한 전면적 반대운동으로서의 카운터컬처(Counter Culture), 즉 반문화운동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대학가로 확산되어 40년이 지난 오늘날 근대문화를 대신한 지배적 문화이념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발전되었다.

오늘날 과거의 모더니즘, 즉 보편적 이성과 객관적 절대적 진리를 전제로 한 근대문화를 전복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에 철학적 초석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곧 해체주의의 한 표현이며, 데리다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조이자 철학적 선동자로, 해체주의를 카운터컬처 운동의 철학적 토대로 볼 수도 있고, 역으로 데리다를 카운터컬처가 낳은 시대적 반역자로, 해체주의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사상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데리다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거론되는 책들로도 증명된다. 그가 1962년에 번역 출판한 훗설의 저서 《기하학의 원천》을 제외하고 그 자신의 저서로는 처음인 《목소리와 현상》 《표기와 차이》 《글라미톨로지》에 관해서라는 3권의 책은 1967년 동시에 출판되었다. 카운터컬처 운동의 절정기가 바로 그 해를 전후한 시기였던 것을 감안하면 데리다의 철학으로서의 해체주의와 시대정신의 문화적 및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카운터컬처 운동의 상호적 인과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이해하는 데 초기작 3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목소리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당시로서는 너무나 낮은 목소리(voix), 주름(pli), 차연(differance), 표기(ecriture), 흔적(trace), 로고상트리즘(logocentrisme), 보충(supplement), 해체(deconstruction) 등등 데리다 고유의 핵심개념, 철학적으로 생소한 반어적이며 난삽한 논지, 그리고 그의 문학적이지만 극히 세밀한 문체가 이 작은 책자에 몽땅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목소리와 현상》은 해체주의 초석이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의 이념적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 책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논지의 치밀성과 문제 추구의 철저함에 있어서 모든 철학적 사유와 글쓰기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1969년 내가 처음으로 이 책을 읽었을 때나 이 서평을 쓰기 위해 다시 읽는 오늘날까지 여러 번에 걸친 독서에도 전혀 변함없다.

서양철학의 지각변동, 데리다의 해체주의

‘해체’라고 불리는 데리다의 철학적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구적 사유, 아니 철학을 비롯한 모든 사유가 자명한 것으로 맹목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언어적인 핵심 전제들의 오류와 모순들을 폭로함으로써 지금까지 서양 철학, 서양적 사유, 서양인, 아니 인류를 지적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데리다는 위와 같은 야심 찬 철학적 프로젝트의 초석으로서 그가 쓴 《목소리와 현상》을 통해 훗설의 《논리적 탐구》에서 다루어진 ‘기호’에 관한 훗설의 이론을 ‘표현’과 ‘기표’의 기호학적, 현상학적 구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구별의 철학적 부당함을 밝혀내고자 한다.

데리다가 자신의 ‘해체철학’의 프로젝트를 위해 그 많은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 가운데서 먼저 훗설을 물고 나온 것은 훗설의 ‘현상학’이 과거 어느 철학보다도 2,500년 전통을

관통해서 갖고 있던 관념주의적 ‘현전presence’의 형이상학과 로고스 중심의 절대적, 객관적인 인식론을 가장 철저하게 체계화해서 엄밀 과학으로서의 철학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훗설의 저서 가운데서 하필이면 《논리적 탐구》를 분석한 것은 이 책에서 훗설의 엄밀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현상학의 원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언어의 논리적 분석과 현상학적 직관에 함께 의존하면서 마치 양자역학에 비교할 수 있는 미세적 차원과 나노 공학자가 물질을 다루듯이 개념, 언어, 경험의 양자역학을 나노적 기술을 동원해서 훗설의 ‘표현’으로서의 기호와 ‘기표’로서의 기호의 구별이 지니는 허점을 폭로함으로써, 데리다는 그러한 사유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상학을 ‘해체’한다.

그에 의하면 현상학,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의 서구철학이 전제해 왔던 영원불변한 존재, 그 존재의 절대적 인식, 보편적 지식, 기호·언어가 개입되지 않은 지각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인식은 상대적이며, 잠정적인 것일 뿐, 보편적이거나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 것도 절대적인 인식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인식은 상대적이며, 근본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로 영원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객관적 진리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러한 진리를 추구했던 플라톤에서 테카르트, 논리실증주의, 분석철학, 훗설 그리고 하이데거를 관통하는 서양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사유의 지각변동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진·위, 선·악은 무엇을 의미하며, 선택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아쉽게도 데리다에게서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는다. 철학적 지각변동 후의 뒤처리가 필요하다. **한문**

박이문 님은 시몬스 대학 명예교수, 연세대 특별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한 허무주의자의 열정》(당신에겐 철학이 있습니까?) 등의 철학서와 《나비의 꿈》 등의 시집이 있다.



《목소리와 현상》

저자 데리다 지음 | 김상록 옮김 | 인간사랑 | 251쪽 | 값 15,000원